

▶ 찾아오시는 길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규장각(103동), 신양인문학술정보관(4동)



자차용

남부순환도로에서 봉천사거리(서울대입구역)에서 서울대 정문 방향으로 이동 정문진입 후 약 450m 전방의 G1게이트에서 좌회전 후 우측에 규장각(103동), 규장각과 법대를 지나 자하연과 농협 사이길로 계속 올라오면 인문대학, 인문대학건물 앞쪽에 신양인문학술정보관(4동)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3번 출구)

→ 시내버스 5513번 법대입구 하차

지하철 2호선 신림역(3번 출구)

→ 시내버스 5516번 법대입구 하차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4번 출구)

→ 마을버스 2번 노천강당 하차

국립한글박물관
NATIONAL HANGEUL MUSEUM

2015년 제2차 문자 연구 학술대회

한글과 동아시아의 문자

날 짜: 2015. 11. 26.(목) - 11. 27.(금)

장 소: 서울대학교 규장각(103동), 신양인문학술정보관(4동)

주 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NATIONAL HANGEUL MUSEUM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과 동아시아의 문자' 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26, 27일 이틀에 걸쳐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글이 지닌 가치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우리나라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동아시아의 문자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중국·일본의 문자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한글과 동아시아의 문자들 간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2015년 11월
국립한글박물관장 문영호

▶ 학술대회 일정

11월 26일 (목)

훈민정음 연구의 성과와 전망

규장각(103동) 1층 소회의실

사회: 정호성(국립한글박물관 연구교육과장)

10:00 - 10:20 총론

이현희(서울대)

10:20 - 10:50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의

서지·판본·복원 연구의 회고와 전망
정우영(동국대)

10:50 - 11:20 훈민정음의 사용·보급·정책에 관한 연구의 성과와 방향

백두현(경북대)

11:30 - 12:00 종합토론

* 11월 26일(목) 오전 행사는 참여인원이 제한된 관계로 20명 사전예약을 받습니다.

* 참가 방법: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 전자우편(hangeul@korea.kr)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국외 문자 연구자 초청 강연

규장각(103동) 지하 강당

사회: 손예철(한양대)

14:00 - 14:10 환영사

문영호(국립한글박물관장)

14:10 - 15:10 갑골문의 발견, 특징 및 의의

許進雄(대만 世新大)

15:25 - 16:25 거란소자 사료의 「失(室)韋」

吳英喆(중국 내몽고대)

16:40 - 17:40 한자에 의한 일본어 표기의 초기 단계에 관하여

村田右富実(일본 오사카부립대)

11월 27일 (금)

한글과 동아시아의 문자

신양인문학술정보관(4동) 3층 국제회의실

09:30 - 09:45 등록

사회: 이승재(서울대)

09:50 - 10:00 문자 연구의 필요성과 그 연구 내용

홍윤표(전 연세대)

10:00 - 10:40 거란소자 연구의 첫걸음

발표: 김주원(서울대)

토론: 이성규(단국대)

10:40 - 11:20 진언집 실담문자 분석

발표: 김현덕(동국대)

토론: 최종남(중앙승가대)

11:20 - 12:00 여진문자의 연구자료(2)

- 필사 자료 및 도장, 거울의 명문(銘文) 자료 -

발표: 김동소(전 대구가톨릭대) 토론: 송강호(고려대)

12:00 - 13:20 점심식사

사회: 홍윤표(전 연세대)

13:20 - 14:00 위구르 문자 계통의 제문자, 돌궐문자의 표기체계

발표: 송기중(전 서울대)

토론: 유원수(서울대)

14:00 - 14:40 파스파 문자(2)

발표: 정광(전 고려대)

토론: 정제문(순천대)

사회: 김주원(서울대)

15:00 - 15:40 한자의 자형 변천고

발표: 손예철(한양대)

토론: 류동춘(서강대)

15:40 - 16:20 借字表記? 韓字表記!

발표: 이승재(서울대)

토론: 박진호(서울대)

16:20 - 17:00 일본의 근대화와 국어문제

발표: 임영철(전 중앙대)

토론: 강인선(성공회대)